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도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TF 첫 회의 개최

영역별 과제 설정·활동 방안 모색... 교직원·전문가 56명 위원으로 참여 12월까지 운영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위한 시도교육청 TF 첫 회의가 20~21일 전라북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효율적인 권한 이양을 위해 전북교육청 주관으로 구성된 이 TF는 이번 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직원 및 전문가 5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권한 이양 계획을 공유하고 영역별 과제 설정 및 토론을 통해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교육행정체제 개편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상철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의 특강도 예정돼 있다.

이 연구원은 "유·초·중등교육 사무 이양 로드맵과 병행하여 교육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전문직제도 및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육행정직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TF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TF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정책과 사업을 전수 조사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우수기획전 20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린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우수기획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해 이양 대상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이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고한 뒤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999년 '중앙행

정권'의 지방이양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지금까지 지방분권 차원의 초·중등 교육권한 이양은 미비했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과 단위학교 자

치 강화'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노후화된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문화·예술·역사 살아있는 승강장으로

전주시, 지역 특성 살린 예술있는 승강장 조성 계획

시설이 낡아 이용하기 불편했던 전주시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가 전주의 문화·예술과 완산동의 역사가 살아있는 승강장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를 용머리고개라는 지명과 과거 대장간과 골동품점, 민간신앙이 발달했던 지역 특성을 살린 예술있는 승강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는 지난 1978년 첫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0여년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224회 1,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설치된 간이정류소 승강장 시설이 노후화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예술있는 승강장의 컨셉을 공평 등의 건물 기와에 쪽 늘어진 사슴이나 동물 형상의 토우를 의미하는 '허쳐구'로

정하고 전주의 서쪽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의 안전과 완산동 지역의 행복을 비단이라는 의미로 승강장 윗부분에 허쳐구를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예술있는 승강장 제작에는 지역 예술가들과 인근 지역 대장간 장인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예술있는 승강장 제작과 함께 효자동 방향과 시내 방향 차로를 재분배해 시외버스 대기차로를 확보하는 사업도 병행기로 했다.

대기차로가 확보되면, 시외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승강장에 정차시 그 일대를 통행하는 일반 차량들이 효자동 방향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해 차량 정체를 유발해온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고속터미널에서도 간편 정비과 매표소 내부 도색을 맡기 위해 울연말이면 김제와 부안, 정읍 고창 방면으로 이동하는 시외버스 이용객들

은 좀 더 쾌적한 환경의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는 도시 자체가 살아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문화공연을 활성화 뿐만 아니라, 관내 공공시설물도 예술작품이자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왔다.

대표적으로 예술 있는 승강장의 경우 현재까지 지역예술가들의 참여 속에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와 호남 제일문 고속·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오목대·한옥마을 승강장 등 총 9곳에 지역별 개성에 맞춰 조성됐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전주의 공공시설물은 기능성뿐만 아니라, 역사와 스토리가 예술로 재해석돼 개성 있는 관광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내·시외버스 승강장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전주 첫 인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앞장서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군산대·전주대·자동차기술원 기업지원 역량 강화 MOU 체결

군산대 LINC+사업단이 20일 전주대 LINC+사업·(재)자동차융합기술원(JIAT) 등과 기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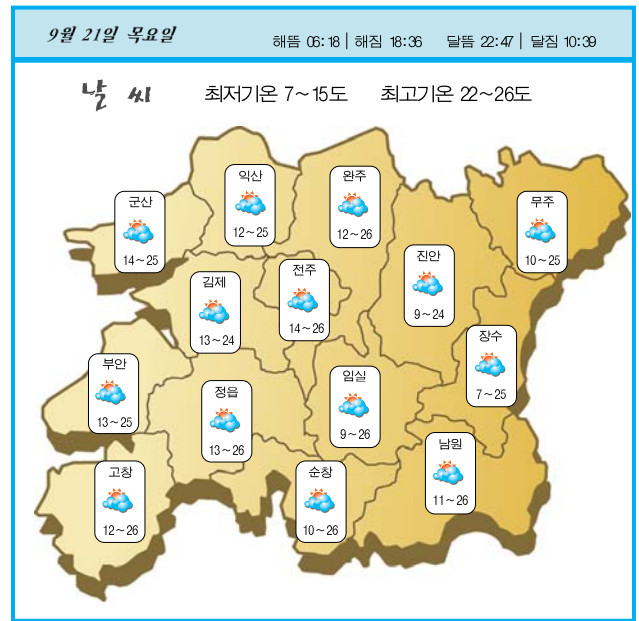
군산 JIAT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동익 군산대 LINC+사업단장, 주승 전주대 LINC+사업단장, 이성수 JIAT 원장과 각 대학의 가족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군산대·전주대의 LINC+사업단과 JIAT는 앞으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학협력의 우수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군산대의 특성화 분야인 기계·자동차 가족회사와 전주대의 예코·에너지링 분야의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북지역 출연기관들과의 협력으로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군산대 LINC+사업단장은 "3개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전북대 기업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 기업 발굴과 성과 확산 등에도 좋은 결실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천사' 컴퓨터운영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소리천사'들을 위한 컴퓨터를 제공한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행사장 내에 오랜 시간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는 봉사자들이 편히 쉬 수 있도록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열리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20일 밝혔다.

센터에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휴식을 필요로 하는 봉사자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편히 쉬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를 마련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컴퓨터를 운영한다.

이에 앞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7월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

위원회와 소리축제에 참여하는 '소리천사' 봉사자들의 처우증진과 인센티브제공 등의 목적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다.

또, 지난 5월~6월 '2017 FIFA U-20 월드컵' 기간에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컴퓨터를 운영했다.

회의록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번 소리천사 자원봉사자 컴퓨터운영을 계기로 전주에서 진행되는 국제행사 및 문화체육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이와 같은 자원봉사자대만을 위한 컴퓨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임실교육지원청-임실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자유학기·교육활동 지원

임실교육지원청은 20일 진로와 자유학기 및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임실문화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들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감수성 및 인성교육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정 교육장과 직원, 임실문화원 최성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임실지역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및 진로직업체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다양한 협력사업과 세부 실천과제를 공동으로 발굴·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상호 약속했다.

정 교육장은 "임실문화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의미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두 기관과의 업무 협력이 충실히 이행되어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물론 임실문화원이 청소년들을 위한 풍성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와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